

Biography of Ju Yŏng-wi, *haegŭm* player

해금과 주영위

1. 해금협주곡 '얼' (실황) Prologue: the <i>Haegŭm</i> Concerto (I) - "Öl (얼)" [from live performance]	13:21
2. 국물(드라마 삽입곡) <i>Kugmul</i> (국물 lit. soup) [background music for a drama]	1:47
3. 손놀림 <i>Son-nollim</i> (손놀림 lit. hand movements)]	1:33
4. 구름 <i>Kurŭm</i> (구름 the cloud)	1:37
5. 언문풍월 <i>Ŭnmun-p'ungwŏl</i> (언문풍월 citing a beauty of nature)	1:21
6. 불꽃춤(무용음악 실황) <i>Pul-kkot-ch'um</i> (불꽃춤 dance of Pul flowers) [dance music, from live performance]	6:38
7. 땅질고 해엄치기 <i>T'ang-gipgo Haem-ch'ig</i> (땅질고 해엄치기 children's games in water)	1:50
8. 지게치기 <i>Chige-ch'igi</i> (지게치기 woodcutter)	3:45
9. 기원(방송녹음) <i>Kiwon</i> (기원 good wishes) [recording for broadcasting]	2:38
10. 돌아라 돌아라 <i>Torara-torara</i> (돌아라 돌아라 merry-go-round)	2:21
11. 상처의 한 <i>Sangch'ot'i-han</i> (상처의 한 feeling of loss)	3:28
12. 해금합주를 위한 중주곡 '얼' (실황) Epilogue: the <i>Haegŭm</i> Concerto (II) - "Öl" [from live performance]	17:54
A total duration of the performances:	58:46

- 해금 / 주영위(周永偉) Haegŭm : Ju Yŏng-wi
- 작곡 · 편곡 / 이병욱(李炳旭) Composer and arranger : Yi Byung-wuk
- 녹음 / 1999. 2. 태평 STUDIO
- 프로듀서 / 양정환 **TOP**
- 제작 / 1999. 4. **JIGU**



1. 해금협주곡 ‘얼 ÖI’ Prologue: The *Haegŭm* Concerto (I) [from live performance] (13:18)

찰현악기인 해금은 가슴깊이 저미는 애절함을, 때로는 해학적이고 아기자기하며 온갖 감정을 폭넓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조들의 지혜와 얼, 그리고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홍천에 자리잡은 마리소릿골에서 이 곡을 쓰게되었다. 협찬 서주에 이어 4/4의 늦은 굵거리로 묵묵히 서있는 장승의 無言無答을 표현. J=ca 60은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서정적으로 표현했고, 이어지는 4/4 (J=ca 100)은 영글어가는 우리얼의 결정체를 귀히 여기고저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The features of the *haegŭm* lie in, a wide range of expressions, from sadness, sometimes humorous and intimate but subtle emotions by pressing and releasing the two strings with various finger movements. This piece of music is composed in *Mari Soritgol* (마리 소릿골) in Hongch' ŏn on the basis of the theme that figures out the meanings of the heaven which symbolises the wisdom and spirituality (얼) of the ancestors. It represents three sections as follows: (i) A slow *kutg ŏri* with 4/4 time which expresses 'muŏn mudap 무언무답 無言無答, reticence, no response]' of *Changsŭng* 장승, totem poles | followed by the resolute introduction; (ii) A bit faster tempo (J = ca. 60 MM) embodies a mystification of the beautiful nature of Hongch' ŏn in a lyrical way; (iii) 4/4 (J = ca. 100 MM) expresses values of the ancestor's spirituality that we wish to be mature by their influences.

2. 국물 *Kugmul* (lit. soup) [background music for a drama] (1:45)

곰탕의 담백하고 순수한 맛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인내와 공력 등 그 장인정신을 해금으로 표현하였다.

This music expresses a neat and pure taste like *Kom-tŭ* 곰탕, traditional soup made of cow-tail which is boiled on a slow fire for very long time until white milky soup becomes] which is required by great effort and patience in order to obtain the real *MaKay d' soup*. This is analogous to a mastership which is admired by people, and a master is in full of expectation and excitement of being judged from people.

3. 손놀림 *Son-nollim* (lit. finger movements) (1:31)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아낙네들의 바쁜 손놀림과 그 흥겨운 정경을 그려보았다.

It is a sketch of the scenes of women's usual hectic day. It describes their rhythmic hand movements and anxious minds while preparing a traditional meal on an open fire, and so on.

4. 구름 *Kurim* (the cloud) (1:35)

우리나라의 하늘은 변화 무쌍하다. 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한가롭고따스한 날의구름은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기도 한다.

The sky of ten changes and there are various shapes of clouds on it. Such moving clouds seem to represent our various states of mind. On a certain day clouds in a peaceful and warm day embrace our emotions.

5. 언문풍월 *Ŏnmun-p'ungwŏl* (citing the beauty of nature) (1:18)

전국을 배경으로, 발아래 굽이치는 산줄기, 가슴에 구름을 가득 품은 푸른하늘, 흥겨움을 노래하는 새들의 움직임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코믹하게 표현하였다.

It expresses a beauty of nature against the whole country with humour such as widening mountainous veins, blue sky, movements of the birds, and so on.

6. 불꽃춤 *Pul-kkot-ch'um* (dance of Pul flowers) [dance drama from 'River for life', from live performance](6:37)

오염되고 탁해진 강을 되살리기 위해 생명의 불꽃을 심으려는 인간의 의지와 투지를 표현 ... 무용극 '생명의 강' 중에서...

It represents of man's wills and endeavours who tries to plant Pul flowers of life in order to recover the polluted and dirty river.

7. 땅쪼고 헤엄치기 *Ttang-gipgo Heöm-ch'igi* (games in water) (1:47)

개구쟁이 아이들에게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It depicts on the scenery of swimming and games by children.

8. 지게치기 *Chige-ch'igi* (woodcutter) [dance music from 'Life of servants'] (3:42)

한점의 나무를 해놓고 풍족함과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소박한 지게꾼의 만족해하는 모습과 장난끼 어린 몸짓을 묘사하였다. ... 무용극 '머슴살이' 중에서 ...

It depicts on a laid-back and composed state of mind of a woodcutter who believes his life with full satisfaction and happiness.

9. 기원 *Kiwŏn* (good wishes) [recording for broadcasting] (2:36)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려는 간절한 기원 뒤에는 은혜를 입기 위해 덕을 쌓으려는 경건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What we wish is to build up piety and virtue in order to obtain benefit after a sincere wishing to beat a bad spirit for fortune and prosperity.

10. 돌아라, 돌아라 *Torara-torara* (merry-go-round) (2:18)

도공들이 물레를 돌리면서 작품이 잘나오도록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심정을 표현한 곡

It expresses the anxious mind of a craftsman who wishes for good results while running a spinning wheel.

11. 상처의 한 *Sangch'oui-han* (feeling of loss) (3:25)

헤어짐 때문에 아파하고, 슬픔이 없을 줄 알았지만... 기약없는 이별을 하고 귀향을 하니 싸늘히 식어가는 부인의 모습에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심정을 표현한 곡

It depicts the feeling of sadness and loss by a homecoming husband after departing from his family without any compromise: when he has returned to his home, he faces a dying wife.

12. 해금합주를 위한 중주곡 “얼” Epilogue: the *Haegŭm* Concerto (II) - “Öl” [from live performance] (17:52)

선조들의 지혜와 얼,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는 의미를 두고 쓴 곡이다. 힘찬 서주에 이어 묵묵히 서 있는 장송.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통해 우리얼의 결정체를 묘사한 협주곡 형태의 해금합주곡이다.

This last piece is the elaboration of the very beginning orchestral work.

〈해설 주영위〉

주영위(周永偉)

주영위(1956.12.~)는 서울 원효로에서 태어나 해금에 전공으로 국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의 한양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국악원을 거쳐 현재 KBS국악관현악단에서 연주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견 연주자이다.

그의 해금에 대한 애착도 남달라서 그동안 해금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해금 악보집 발간, 해금 연주자의 모임인 '이현의 농' 대표, 실내악단 '어울림'을 통한 음반작업 활동 등으로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해금 연주자로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요즈음 우리 국악계에 많은 연주자들이 자기만의 음악 색깔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활발한 음반작업은 한국음악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여러 장르의 음악 색깔을 선보이고 있는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제작된 '해금과 주영위'의 음반도 해금 연주자로서 부지런히 살아온 그의 열정이 어우러진 앨범으로 해금 음악의 독창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작업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앨범을 통하여 주영위의 음악생활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인정되어 많은 이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대 교수 강 사 준

주영위의 해금 음악

주영위 해금연주는 그의 주 활동 텃밭인 KBS국악관현악단에서는 물론 실내악단 활동에서 단연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실타레 뿔아내듯 이어지는 그의 소리, 그만의 해금가락들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열정을 빼어 닮았다.

정감이가는 소리, 어디선가 한 번 쏘 들어봤음직한 친근감이 가는 소리, 그러면서도 생동감이 넘쳐 살아 꿈틀거리는 삶의 소리, 바로 이렇게 우리들 모두의 상상의 소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의 해금가락들은 우리 음악계에 잔잔한 파장을 그려내고 있다.

현재 우리 국악계에 많은 해금 주자들이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주영위는 해금 연주에 있어서 어쭙잖은 잔기교를 일체 용납치 않는 몇 몇의 연주자들 중의 한 사람에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 방면의 정식 코스를 밟아온 매우 지적이고 학구적인 음악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연주에는 사(邪)가 끼어들지 못한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의 음악에 대한 태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존경해 마지 않는다.

비록 역사는 길지 않지만 창작곡 위주의 실험적인 작품을 소화해내는 뜻깊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금 창작곡 모음집을 3집, 다수의 해금논문 발표 등 시대에 걸맞는 현대 국악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 연주, 학술, 출판, 음반 작업 등 다방면에 걸쳐 야심찬 의욕을 보여온 그가 이번엔 무용음악, 드라마 배경음악, 방송음악, 실내악 등을 한 폭지로 묶어 음반화 한 것이다. 해금음악 실용화의 길을 걸어온 주영위 음악활동의 결정판이요,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의 음악세계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 음악계에 소개된 해금 음반들과 함께 국악계를 풍요롭게할 주목이 가는 음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지금은 예술과 음악의 장르를 초월한 무경계음악 소위 'cross over'가 유행하는 시대니만큼 이 음반이 돋보이는 것이다. 우리 국악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음반의 출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기호에 부응하는 실용 음악들이 많이 나와주어 국악이 이 시대에 새로운 모습과 개념으로 정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해금이라는 악기가 전통과 현대를 뛰어넘어 'cross over'를 이끌어 가고 있는 태풍의 눈이 아닐까한다. 2현을 눌러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소리들, 장터에서 장돌뱅이 노 악사가 빚어내는 우수쟁스런 효과음에서부터 실험적인 작곡가와 주자들이 서양의 팝송을 천연덕스럽게 소화내는 일에 이르기까지 해금의 무한(無限) 잠재력을 오늘, 우리음악현장에서 살필 수 있다. 중국에 가면 월후(二胡)의 소리가 쟁쟁하고 몽골에 가면 모린 후르(馬頭琴)소리가, 동남아에 가면 피들(fiddle)계통의 악기소리가 독특한 인상을 자아내지만 우리의 해금은 해금대로 매우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같은 인삼이라도 우리나라 조선에서 나온 인삼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처럼 같은 해금류의 악기라 할지라도 우리 해금은 매우 맛을 지녔다. 혹자는 서양의 바이올린보다 더 웅골차고 독특하여 가히 세계적이라고 한다.

여기 이렇듯 강한 개성의 해금으로 이 시대의 뛰어난 감성을 지닌 주영위가 오늘날 우리의 생활음악을 실었다. 그의 인간성이니 폭력만큼이니 우리 국악계에 돋보이는 명반이다.

우석대학교 국악과 교수 윤 명 원

Biography of Ju Yŏng-wi, *haegŭm* player

The *haegŭm* playing of Ju Yong-wi is regarded as being unique not only in the professional musical world of KBS Orchestra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where he is principally based on but also in various group playings where he also takes part in music-making actively. The way in which he plays the *haegŭm* is described as follows: his playing technique is so natural and flowing that the resultant sound is like the smooth way of disentangling silk threads; his melodic lines reflect on passion and freshness of the youth; his affectionate tone and exuberant rhythm are familiar to ear, thus implying the possible imaginative sounds which have brought echoes into the musical performing world.

Ju is one of some serious *haegŭm* players who would never allow themselves to show off technical displays to the public. Instead of such showmanship, he has chosen to deliver music in an intelligent and controlled way. For this he has taken the hard courses of training as a musician, rather than a simply *haegŭm* player, so that his playing is solid and mature. This attitude has made him much respectable and is marked by highly praised comments, though he is in early 40s.

He currently plays an active role not only in group playing called 'Ŭllim (어울림)' as a *haegŭm* player, but also in the gathering for *haegŭm* players called 'Ihyŏnŭi Nong (이현의 농)' as a leader. In particular, he is deeply involved in playing experimental and newly composed works which are based on traditional idioms, thus contributing to a wider range of listeners. In the course of devoting his efforts to modernising traditional music, he released some records of a collection of new compositions for the *haegŭm* (3 volumes). Apart from his concerns with practical sides, he also takes interest in theoretical sides, publishing some articles on the *haegŭm* and other instruments related to their music. All these activities show his attempts to seek a new direction of interpreting Korean music.

This CD highlights his commitments to playing a variety of genres and styles such as dance music, background music for drama, music for broadcasting, orchestral music, and so on. This is interesting because at the moment music becomes boundless with other arts, even among other genres of musics, and an idea of putting one kind of music into another music which is called 'cross-over'

music is popular. In fact, there has been perceptions that musical compositions should be based on the ordinary lives and social aspects of our own time. In this trend, this record will satisfy the audience's demands on listening to such common emotion which might be called 'practical music'. With regard to various expressions, the bowed instrument, *haegŭm* is fitted in this desire in terms of its timbre and technique. It is able to convey various musical ideas regardless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repertoire: the *haegŭm* produces a variety of tones by various finger movements, ranging from humorous effect sounds in the market places to the experimental pop songs of Western culture. However it is still required in facilitating its potential fully from further developments of its playing technique. There are some identical families with the Korean *haegŭm* in other cultures: Chinese *erhu* (二胡), Mongolian *morin khuur* (馬頭琴, spike fiddle with the decoration of a mare's head), the rabab family in India, South Asian countries, the Middle East, and so on, as well as Western fiddles. Each one has its uniqueness, but Korean *haegŭm* possesses a special quality of the strong character in expressing. This uniqueness can be compared with other cultural assets, for instance, as Korean ginseng is recognised worldwide, as the *haegŭm* possesses diverse features in its playing manner and timbre through its unique hand movements. There is no doubt that Ju Yŏng-wi expresses these features of the *haegŭm* with his fine sense and intelligence on this CD and listeners will recognise his sensitivity and talent from his playing.

Biography of Yi Byung-wuk (이 병욱, 李莚旭) - composer and arranger

청주서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실내악단 '어울림'의 대표를 맡고 있다.

Yi Byung-wuk has founded '*Öullim*' which is an activity of group playing and has been playing for ten years. He has also been composing contemporary musics which are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rying to make such repertories popular and modernising.

He has been released more than thirty records covering various genres of new compositions such as '*Öullim*', '*Saeroum* (새로움 newness)', music for meditation (명상음악), music for dramas, dance music, and so forth. These outcomes result from his enormous efforts on the rediscovery of '*Minchungui-sŏri* (민중의 소리, music for the people)'. He has also composed some eventual music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for a ceremony of the River Han and delivery of torch for the Seoul Olympic Ceremony in 1988. As a consequence of his talent, he received several awards such as Orchestral part for the 19th Seoul Music Festival, The 9th Korean Composition Award (1988), the 26th Peksang Art Grand Prix (1990), The 10th Korean Best Composition (1990), KBS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 (1992) and Composition for Korean Brass Music (1994).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Art College in Söwön University, Ch'öngju and a leader of *Öullim*.

주 영 위(周永偉) *Haegŭm player* Ju Yŏng-wi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음대 국악과 및 한양대 대학원
국립국악원,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이수

현, 실내악단 어울림, 실내악단 이현의 농 대표해금주자의 모임,
KBS국악관현악단 재직

- 논문 해금산조의 조에 대한 연구, 해금운지법 연구, 아쟁에 관한 연구, 해금 및 아쟁 관련 논지와 악보의 총합 및 분석, 해금운궁법 연구(Violin 운궁과 비교하여) 등
- 저서 해금 창작곡 모음 1, 2, 3, 이현의 농악보집 발간등
- 학술발표 해금창작곡에서의 해금 음악 주제 발표(국립국악원)
해금의 악기조건과 작곡조건 주제발표(신악회)
KBS방송대답, EBS해금에 대한 해설 및 대담 등
- 음반작업 어울림 음반 다수, 국악연구성가곡집, 엄마와 유아를 위한 전통음악 1, 2집, 라이브 공연 음반 등
- 연주활동 협연, 중주, 독주, 초청연주, 방송 녹음 및 연주 등 다수 음악 녹음 및 지휘
- Education: Graduated from *Kunglip Kukak Senior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M.) and *Hanyang University* (M.A.)
- Career: Former member of *Kunglip Kukakwŏn* (The National Centr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rained for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
Former member of *Hankuk-Changjae-Umak-Yŏnhuhoe* 'Research of new compositions based on traditional idiom'
Currently a member of group playing, '*Ŭllim* (어울림)
A leader of '*hyŏn-tŭ-nong* (이현의 농) Gathering for *haegŭm* players.'
- Publications of theses and articles: A study of '*Chŏ* (조 調, modes)' in the *Haegŭm Sanjo*
A study of left-hand technique (lingering) in *haegŭm* performance
A study of the *qjaeng* 'seven string zither with a bow'
Studies of the *h a e'm* and *a j a e* 'focusing on analysis and general survey of their musical notations
A Collection of New Compositions for the *Haegŭm* (vols. 1-3)
Musical Notation issued by '*hyŏn-tŭ-nong*'
- Papers for Conference: Theme of the Reception of Korean Music (sponsored by *Kunglip Kukakwŏn*)
Interview with KBS, Introduction and description of the *haegŭm* in the Programme of EBS
- Released Recordings: 'Korean Traditional Music for Mother and Children (vols. 1 & 2) by '*Ŭllim*'
- Other performance activities: As a soloist, ensemble, guest performer, broadcasting, recording producer and conductor, and so on